

하상주보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2년 4월 24일
제1893호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도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요한 20, 27-29)



〈의심하는 토마스〉, 구에르치노, 잘츠부르크 미술관, 오스트리아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다해)

제 1 독서 사도 5,12-16 | 주님을 믿는 남녀 신자들의 무리가 더욱더 늘어났다.

화답송 시편 118(117) |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제 2 독서 묵시 1,9-11 L.12-13.17-19 | 나는 죽었지만, 보라, 영원무궁토록 살아 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복음 요한 20,19-31 | 여드레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느님의 자비 주일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드러난 '하느님 자비'에 감사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대희년인 2000년 부활 제2주일에 '하느님 자비의 사도'로 불린 마리아 파우스티나(1905-1938) 수녀를 시성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히 하느님의 자비를 기릴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따라 교회는 2001년부터 해마다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 주일'로 지내고 있다.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의 크나큰 자비에 감사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자비 상본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1931년 2월 22일 환시 중에 파우스티나 수녀에게 나타난 그리스도는 수녀가 본 당신 모습 그대로 상본을 그리고 그 아래에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는 글을 넣도록 하셨다. 그 모습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손과 발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표시가 나타나 있고, 심장으로부터는 붉은 빛과 옅은 빛의 두 광채가 발산되고 있다. 그리스도의 깊은 자비에서 흘러나온 이 두 광채는 성체성사(붉은 광채)와 교회(옅은 광채)를 상징한다.



《하느님의 자비 상본》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세상에 일깨우고
말과 행동과 기도로써 자비 실천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가 전하는 하느님의 자비 신심의 핵심은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세상에 일깨우고, 하느님의 자비에 관한 신심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어린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자비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겨 드리는 의탁이 필요하다. 또 말과 행동과 기도로써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

복음 묵상

부활 제2주일, 교회는 토마스의 불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복음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문을 잠가 놓고 있는 모습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제자들 가운데 토마스는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여드레 뒤, 토마스를 포함한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뺀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이 구절 뒷부분의 그리스 말 본문을 직역하면,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이가 되어라.’입니다. 토마스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은 지금껏 품어 온 불신과 의심을 내려놓으라는 초대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는 토마스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며, ‘하느님’이시라는 이중 고백을 포함합니다. 이 탁월한 표현은 초기 교회 공동체 전례 때 사용되었을 신앙 고백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 복음에서는 믿음과 증언, 믿음과 행복이 긴밀히 연결됩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 신비를 체험한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목격 증인의 증언을 믿음의 토대로 삼습니다. 이러한 신앙 전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성경과 성전, 수많은 성인과 이름 모를 이웃의 힘 있는 증언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끊임없이 초대를 받습니다. <김상우 바오로 신부>

“전쟁을 멈추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승리하도록 합시다”

“우리 삶, 우리 가정, 우리 나라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오도록 합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4월 17일 부활 메시지와 ‘로마와 온 세상에(Urbi et Orbi)’ 보내는 교황 강복을 통해 이 같이 호소했다.



〈성 베드로 대성전 중앙 강복의 발코니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교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인사하신 대로 “평화가 너희와 함께” (요한 20,19 참조)라는 말씀으로 인사하면서도 올해는 “전쟁의 부활절”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너무 많은 피와 폭력을 목격해 왔습니다. (…)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과 참으로 죽음을 이기셨음을 믿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교황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끝없는 사순시기처럼 보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며 “참으로 부활하셨다!”고 강조했다.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랑의 승리를 믿고 화해를 바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있기를

교황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는 우리를 위해 사랑의 무기로 싸워 이기신 투쟁의 표징”이라며 “이는 우리가 평화를 되찾고, 평화 안에 머물고, 평화롭게 지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언급하며 평화를 기원했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깃들길

기원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잔인하고 무의미한 전쟁에 끌려 들어가 폭력과 파괴로 가혹하게 고통받으며 극심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과 죽음의 이 끔찍한 밤, 희망의 새 여명이 하루빨리 밝아오길 바랍니다!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 힘을 과시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이기심과 개인주의를 극복하길 바랍니다

교황은 현재 일어나는 일을 슬퍼하면서도 “유럽 전역에서 이주민과 피란민을 환대하기 위해 수많은 가정과 공동체의 문이 열리는 등 고무적인 조짐도 보인다”는 사실도 잊지 않았다.

교황은 “이러한 수많은 애덕의 행위가 때로는 너무 많은 이기심과 개인주의로 타락한 우리 사회를 위한 축복이 되고, 모든 이를 환영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또 다른 긴장, 고통, 아픔의 상황”에 대한 배려도 희망했다.

평화, 모든 이의 일차적 책임

교황은 부활 메시지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전쟁을 언급했다. “모든 전쟁은 눈물에서 피란민의 비극에 이르기까지, 경제 및 식량위기에 이르기까지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교황은 그럼에도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격려했다.

“죄, 두려움, 죽음의 승리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계속되는 전쟁의 징조는 물론 삶에 대한 수많은 고통스러운 좌절 앞에서도 악과 폭력에 굴복하지 말라고 재촉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화가 승리하도록 합시다! 평화는 가능합니다. 평화는 의무입니다. 평화는 모든 이의 일차적 책임입니다!”

원주교구장 조규만(바실리오) 주교님의 본당 방문을 환영합니다.

- 주교님 방문 미사 : 4월 24일(일) 오전 10시 (본당)
- 출국 환송식 : 4월 26일(화) 오전 10:30 성당 앞



1 2차 헌금

- 이번 주일은 Catholic Home Missions Appeal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022년 친교의 장터 한마당

- 일시 : 4월 24일(일) 오전 9시 - 오후 2시
- 장소 : 본당 뒤 주차장
- 각 구역별 음식 판매와 흥겨운 게임 등이 진행됩니다. 모두 참석하시어 사랑의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 4월 24일(일) 오후 2시 미사는 없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오전 10시 미사에 참석해 주세요.
- 당일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신자분들은 Northrop Grumman(구 TRW/IBM)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7:30 - 오후 2시까지 셔틀버스 운행)

3 루카회 월례회의

- 일시 : 4월 24일(일) 오후 1:30, 장터

4 요한회 월례회의

- 일시 : 4월 24일(일) 오전 11:30, 장터

5 바오로회 모임(30대 교우)

- 일시 : 4월 24일(일) 오후 3시 (하상관 1층)
- 문의 : 권영기 (703) 589-5865

6 요한회 월례모임

- 일시 : 4월 30일(토) 오전 10시 (Shotgun)
- 장소 : Meadow Farms Golf Club
- 문의 : 김다니엘 (703) 517-1574

7 단체부 홍보의 날

- 일시 : 5월 1일(일) 오전 8시, 10시, 오후 2시 미사 후
- 장소 : 친교실
- 각 단체들은 홍보를 위한 준비를 해 주시고, 신자분들은 1인 1단체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8 파티마 세계 사도직 첫 토요일 신심 기도 및 미사

- 일시 : 5월 7일(토) 오전 10:30 (첫 토요일 신심 미사)
- 파티마 사도직 기도회는 오전 9시에 있습니다.
- 토요일 신심 미사로 토요일 새벽 미사는 없습니다.

9 유아 세례

- 일시 : 5월 7일(토) 오후 2시
-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ME 주말 부부

- 일시 : 5월 28일(토) 오후 7시 - 30일(월) 오후 5시까지
- 장소 : 헌팅톤 수도원(롱아일랜드, 뉴욕) • 접수 : 친교실
- 문의 : 김영술(아놀드), 레지나 부부 (703) 477-2435

11 기도로 힘을 얻어 삶으로 전교하자 제83차 예비신자 모집

- 입교식 : 5월 8일(일) 오전 8:30 (하상관 #110)
- 등록 : 매 주일 선교부 테이블(오전 8시, 10시 미사 후)
- 문의 : 이인표 가브리엘 (703) 851-2364
- 미사 퇴장 성가는 "선교를 위한 노래"와 이후에 "선교를 위한 기도"를 바칩니다. 선교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12 2022 CYO WorkCamp Contractor 봉사자 모집

- 봉사 기간 : 6월 19일(일) - 6월 24일(금)
- 알링턴 교구 WorkCamp에 함께 봉사할 컨트랙터를 구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권용우 스테파노 (571) 244-0333 사무실 (703) 968-3010

13 CYO WorkCamp 기금마련을 위한 Car Wash

- 일시 : 5월 15일(일) 오전 8시, 10시 미사 후
- 장소 : 성당 부엌 뒤 주차장
- 가격 : \$15 (도네이션도 받습니다)
-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느님의 자비 주일

지극히 동정심 많으신 예수님, 주님은 동정심 자체이십니다. 저는 당신의 지극히 동정심 많으신 성심 안으로 미지근한 영혼들을 인도합니다. 주님의 순수한 사랑의 불 속에서, 시체와도 같이 주님을 깊은 혐오감으로 몰아넣는 그 나태한 영혼들이 다시 한 번 불붙게 하소서.

오 지극히 동정심 많으신 예수님, 주님의 능력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님 자비의 전능을 드러내시어 열렬한 주님의 사랑 속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성스러운 사랑의 선물을 그들에게 내려주소서.

자비의 아버지, 당신 아드님의 흠직한 수난과 세시간 동안이나 매달리신 십자가의 고통에 의지하여 간청하오니, 그들도 당신 자비의 심연을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의 9일 기도 중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2년 4월 17일(주일 부활 대축일)

성 목요일 헌금	\$ 2,974.00
성 금요일 헌금	\$ 7,103.00
부활 성야 헌금	\$ 5,740.00
주님 부활 대축일 헌금	\$ 14,424.00
교무금	\$ 12,410.00
교무금(신용카드)	\$ 7,340.00
감사 헌금	\$ 910.00
온라인 봉헌	\$ 3,180.00
합계	\$ 54,081.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정바로요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 4월 28일(목) 오후 5:00-6:00
- 4월 29일(금) 저녁 8:00-9:00
- 5월 1일(일) 오전 6:00-7:00

1. 신부님 주일 강론

- 2. 특강 : 김진태 안드레아 신부님의 "하느님의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8) - 종합예술의 결정체 '바로크' 양식

그리스도인 정신의 생활화 이웃사랑을 실천합시다

- ♥ 성당 주변(Rippling Pond Dr.) 이웃들의 정원에 쓰레기나 음료수 빈캔 등을 버리지 마세요.
- ♥ 새벽 미사 참석 시, 저속 운행(15마일)과 성당 방향으로 주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table border="1"> <tr> <th>화, 금</th> <th>수</th> </tr> <tr> <td>• 6:00 AM</td> <td>• 7:30 PM</td> </tr> <tr> <td></td> <td>• 11:00 AM</td> </tr> </table>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루카 6, 36)